

#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관련 평창군의회 의원 성명서

의안 번호	205
----------	-----

발의연월일 : 2019년 12월 02일

발 의 자 : 이주웅 의원

찬 성 자 : 장문혁, 박찬원,  
지광천, 심현정,  
전수일, 이명순 의원

## 1. 제안이유

가. IOC의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권고에 따라 강원도가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의회 의결을 얻어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IOC의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권고에 따라 명칭이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확정됨

나. 2024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하고 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와 남북 스포츠 교류로 평화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하지만 유치과정에서 대회 명칭 및 개·폐회식 장소 확정을 놓고 올림픽 도시 간에 지역 이기주의적 갈등이 표출됨

라. 평창군의회에서는 올림픽에서 비롯된 평화와 번영의 정신을 반영하고 레거시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개·폐회식이 평창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마. 명칭도 '2024평창동계청소년올림픽'이 되어야 함을 촉구

#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관련 평창군의회 의원 성명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신청에 즈음한 평창군의회 입장)

강원도에서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제2막 휘날레를 장식한다는 의미로 IOC의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권고를 수용하기로 해 여타 변수가 없는 한 강원도가 실질적 개최지로 확정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평창 군민은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확고한 시금석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국격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는 동계스포츠 저변을 육성하고 자라나는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적극 알릴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하고 유무형의 유산을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현재 지지부진한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 활성화와 남북 스포츠 교류 실현으로 평화분위기 조성을 통한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창 군민은 이번 대회 유치 적극 지지함을 밝힌다.

그러나 최근 2024청소년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대회 명칭 및 개·폐회식 장소 확정을 놓고 올림픽 도시들간의 지역 이기주의적 갈등이 표출되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이다.

평창군의회는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발현된 평화와 번영의 숭고한 개최정신을 반영하고 평화올림픽이라는 브랜드와 레거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폐회식이 평창에서 개최되어야 하고 대회 명칭도 “2024 평창동계 청소년 올림픽” 이 되어야 함을 강원도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만약 반영이 안될 경우 본 대회 유치에 대한 반대 입장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9년 11월 29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